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2008, Vol. 14, No. 1, 19~45.

사회변동의 지각과 주관적 안녕감: 대처자원의 효과에 대한 국가 간 차이의 분석

김 정 식†
웨스턴워싱턴 대학교

김 완 석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급격한 사회변동의 대한 주관적 지각이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대처자원인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이 문화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는다는 가설을 한국과 미국표본을 비교함으로써 검증하였다. 한국과 미국에서 수행된 설문자료를 다표본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첫째, 사회변동 속도의 지각이 사회변동의 평가라는 매개과정을 통해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고, 둘째 개인적 자원은 미국표본에서 그리고 사회적 자원은 한국표본에서 스트레스의 대처에 더 큰 효과를 가짐을 각각 발견하였다. 사회변동의 주관적 지각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었다.

주요어 : 사회변동, 주관적 안녕감, 문화, 구조방정식, 주관적 지각

† 교신저자 : 김정식, 웨스턴워싱턴대학교
Email : Jungsik.Kim@wwu.edu

사회는 항상 변화한다. 변하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변화는 유기체적 존재로서 사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Thomas, 1980). 특히 최근의 사회변화의 경향성을 보면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국가 간 혹은 사회 간 상호의존의 정도가 커짐으로서 한 사회 혹은 국가에서 일어난 주요한 변동[1]이 광범위하게 다른 사회에 도미노처럼 파급되어 등(예: 아시아 경제위기) 변화의 범위가 범세계적이며, 변화의 속도가 이전의 어떤 시대와 비교하여도 빠르고 급격하다는 특징이 있다(Albrow, 1996; Hermans & Kempen, 1998; Marsella, 1999).

그렇다면 이러한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사회변동이 주는 대인적 영향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관해 사회과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 분야의 연구는 주로 사회학이나 인구학과 같은 거시적 접근으로 이루어졌다. 초기 사회학은 사회변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장미 빛 태도를 가졌다. 즉 사회의 변화는 발전, 개혁, 성장과 같은 의미로 언급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져온다고 보았다(Sztompka, 2000에서 재인용). 이는 초기 자본주의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제국주의의 확대로 국가 및 개인의 부의 축적을 가져왔던 20세기 초반 유럽사회에 팽배한 낙관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 사회변화에 대한 긍정적 관점은 사회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Durkheim(1893, 1990)을 기점으로 변했는데, 그는 급격한 사회변동은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바꾸어 사람들이 어떠한 규범과 가치를 따라야 할 지 혼란을 겪는 공황상태인 아노미 상태에 이르게 한여 심리적 혼란을 낳는다고 보았다. 사회변동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문화적 외상(cultural trauma)이라는 개념으로 현재도 사회학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Sztompka, 2000).

심리학에서는 사회학에 비해 사회변동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받은 경향이 있어서 주로 급격한 사회적 혼란의 시기를 전후로 한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Elder(1999)가 미국에서 일어난 대공황이 가족과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장기적인 종단연구를 수행하였고, 유럽에서는 1980년대 초 사회주의 몰락 이후 구소련 및 통일 후 동독, 구 동구권 국가에서 일어난 사회변동에 주로 초점을 두어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정치체제의 변동(Schroeder, 1997) 및 경제체제의 변동(Adwin & Revenson, 1986; Balakrishna, 1993; Morris, 1993; Sloutsky & Searle hite, 1993)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 졌는데, 대체로 사회변동이 심리적,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Pinquart, Silbereisen, & Juang, 2004).

사회변동의 주관적 지각

전술한 연구들은 사회변동이라는 거대한 변인이 어떻게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제한적 설명을 하는데 그쳤다. 사회학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이데올로기 변화, 정치체제의 변동 등과 같은 거시적 변인들을 중요한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Noack et al. 2001). 반면에 심리학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대개 사

1) 일반적으로 가치중립적이나 긍정적인 맥락에서 '사회변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급속히 일어나거나 부정적인 맥락에서는 '사회변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두 용어가 맥락에 따라 적절히 다르게 사용하였다

회변동의 부분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어 실업이나 가족이라는 단위에서 경제적 압박과 같은 몇 개의 변인을 일부 선택하여 정신건강의 지표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Kim, in press; Noack, Kracke, Wild, & Hofer, 2001). 즉 사회학에서는 사회변동을 지나치게 거시적으로 보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심리학에서는 사회변동을 너무나 미시적으로 분자화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사회변동이라는 변인을 전체적 조망하지 못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최근의 연구들은 사회변동의 영향을 주관적 지각이라는 매개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대안적 설명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회변동의 주관적 지각이라는 미시적 접근은 거시적 접근방식만큼 중요하다. Lewin(1935)의 고전적 장이론(Gestalt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주관적 심리세계에 살고 있으며 주관적 심리적 장(field)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만이 실제로 그들의 심리, 신체적 상태에 영향을 준다. 이 관점은 사회인지이론에서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외적인 자극들이 원 상태 그대로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호의적인 정보만을 선별적 지각하거나 지각된 사실을 왜곡하는 등 개인의 주관적 인지 틀 속에서 재단되고 편집되어 인지된다(Pyszczynski & Greenberg, 1987). 사회변동에 관해서도 유사한 견해가 피력되는데 Kameoka와 Marsella(1999) 및 Doerfel Baasen과 Rauh(2001)는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선택적으로 지각하며 선택적으로 지각된 사회변동만이 그 사람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경제위기를 예로 든다면, 급속한 경제위기와 혼란이 대다수 국민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을 가져왔지만, 실제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환차익으로 인해 도리어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보았다. 이들에게 있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달러의 가치는 쉽게 오지 않는 재정적 기회였다. 따라서 사회변동의 영향은 상당부분 주관적 지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학자들은 사회변동을 측정할 때 미시적인 관점인 사회변동의 주관적 지각과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Noack, Kracke, Wild, & Hofer, 2001; Pinquert & Silbereisen, 2004; Trommsdorff, 2000). 이들은 개인의 주관적 지각을 통하여 사회변동을 측정함으로써 독일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이 가족과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사회변동의 연구에서 주관적 지각에 초점을 두는 방식은 실증연구를 하는 데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사회변동에 대한 연구는 전형적으로 종단연구 방식을 사용하는 데 발생하는 일부 제한점에 대해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종단연구는 전형적으로 어떤 두 시점에서 일어난 종속변인의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사회변동의 영향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종단연구는 연구대상 표본의 유실가능성이 높고 사회변동이 어떤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일정한 시기를 두고 기다려야 하므로 즉각적인 사회이슈인 사회변동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연구의 실제적 응용가능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나(Noack et al., 2001), 주관적 지각의 측정은 이 같은 시점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 둘째, 주관적 지각에 중점을 둔 연구방식은 한 두 변인에 집약적으로 초점을 두어야 하는 거시적 연구방식에 비해 사회변동의 전체적 조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덜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경제, 정치, 문화 등의 세부적 사회분야에서의 변동을 지각하기도 하지만 'IMF 구제금융시기'라는 전체적 조망도 경험한다. 이처럼 사회변동을 측정하는데 미시적 관점의 주관적 지각을 이용할 경우 이러한 전체적 조망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Trommsdorff,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변동의 거시적 연구방식들이 간과한 주관적 지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회변동을 개인의 주관적 지각에 초점을 두어 측정하였다.

스트레스 이론과 대처 자원

사회변동의 연구에서 개인의 주관적 지각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은 Lazarus 와 Folkman(1984) 및 Lazarus(1991)가 제안하는 스트레스의 교류이론(Transactional Theory of Stress)을 통해 사회변동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Kim, in press; Noack et al., 2001; Pinquart & Sorenson, 2004). 교류이론에 의하면 스트레스란 외부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의 도전에 대한 적응해야하는 과제와 이에 대처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및 사회적 자원에 따라 결정되는 함수적 관계이며 이 과정에서 인지적 평가가 핵심적인 요인이다. 인지적 평가과정은 두 단계로 일어난다. 먼저 과제에 대한 평가(demand appraisal)가 일어난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과제나 상황은 개인으로 하여금 신체적 정신적 활동과 개입을 요구할 것으로 평가가 된다. 과제가 도전이라고 평가가 되면 개인은 자신이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혹은 어려운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이 때 두 번째 단계로서 자원에 대한 평가(resource appraisal)가 일어난다. 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대처자원(Moos & Schaefer, 1993)의 가용정도를 평가한다. 대처자원의 평가를 통해 주어진 적응의 과제를 충족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과제는 오히려 자극적이고 흥미 있는 도전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과제가 대처자원의 가용정도를 넘어서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위협으로 평가가 된다. 결국 위협으로 판단된 과제는 정신-신체적 영향을 가져온다. 즉 교류이론은 외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반드시 정신 및 신체건강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스트레스 요인의 위협 정도와 대처자원의 가용성과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 인지적 평가가 정신 및 신체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결정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교류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변동은 거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중요한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이다. 사회변동은 흔히 많은 종류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특히 심리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규범, 가치, 관습 등의 변화를 가져온다(채정민, 한성열, 이종한, 금명자, 2007; Crockett & Silberisen, 2000; Ihle, et al., 2001; Noack, Kracke, Wild, & Hofer, 2001). 어떤 사회든 변화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며 개인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변화는 늘 직면하고 대처하며 적응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가 갖는 당연한 상호작용이다. 그러나 사회변동에 대한 적응이라는 과제가 급속한 변화의 속도와 같은 특성으로 의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처자원에 비해 크다고 지각될 경우 사회변동은 정신 및 신체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통일 후 구동독이나 구소련연방의 해체 후 러시아의 경우 자본주의로의 경제 및 문화적 편입이 급속하게 일어남으로서 두 국가의 국민들이 다른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Noack 등, 2001; Pinquart, Silbereisen, & Juang, 2004). 그러나 사회변동으로 인한 적응과제에 비해 지각된 대처자원이 넉넉할 경우에는 이 과제는 통제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며 때로는 적응과제에 대처하는데 자신의 효과성을 지각함으로써 만족이나 자기효능감의 증대와 같은 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 정보 및 통신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경제구조가 대폭 바뀌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중년 이상의 많은 직장인들에게 직무환경의 변화에 관련한 스트레스로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준 반면에 이전의 경제구조에서 학벌이나 기초자본의 제약으로 의해 기회가 제한되었던 많았던 많은 벤처기업가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아무리 사회변동의 잠재적 위협정도가 크다고 하더라도 대처자원이 충분하다고 지각하면 사회변동은 반드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변동의 잠재적 위협이 작더라도 대처자원을 작다고 지각하면 사회변동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교류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변동의 부적 및 정적 영향은 상호 모순된 것이 아니며 하나의 이론적 틀에서 통합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미래학자 및 사회분석가인 Toffler (1980)와 사회학자인 Laurer(1980)도 유사한 견해를 피력했다. 즉 사회변동 자체는 가치중립적이지만 사회변동의 속도가 빠르고 느린 정도가 정적 혹은 부적 심리적 영향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이는 스트레스의 교류이론의 관점에서 사회변화의 심리적 영향을 보는 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이 관점은 사회변동의 여러 속성 중 속도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다. 요약하면 사회변동의 심리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스트레스 교류이론은 사회 및 심리적 대처자원의 이해와 역동이 중요하며 특히 인지적 평가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스트레스 대처자원과 문화적 의미

대처자원은 스트레스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널리 채용해 온 변인이다. 그 중에서 특히 개인적 자원인 자기존중감과 사회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는 대표적인 변인이다. 자기존중감과 같은 개인적 자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기질적인 특성을 가진 심리적, 태도적인 그리고 인지적 요소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변인이다. 자기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가지는 전반적 평가'로서(Harter, 1993, p. 88),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자기존중감이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와 부적으로 관련을 맺으며, 스트레스의 평가과정의 조절작용(Curbow & Somerfield, 1991; Fernandez, Mutran, and Reitzes Lightsey, 1994; Simonds, McMahon, Armstrong, 1991) 또는 매개작용을 통해(Lazarus & Folkman, 1984)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한편, 사회적 자원은 가족이나 친구, 공동체와 같은 사회적인 관계망(social network)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원, 즉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용 가능한 일련의 자원을 일반적으로 일컫는다(Moos & Schaefer, 1993). 특히 대표적 사회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속한 사회적 관계망에서 타인에게 사랑받고 있고, 소중하게 여겨지며, 존경받고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Wills, 1991). 사회적 지지 역시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해주는 조절효과나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었다(Sarason, Levine, Basham, & Sarason, 1983; Sarason, Sarason, &

Pierce, 1994). 요약하면, 기존의 대처자원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대처자원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느냐 아니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느냐 하는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대처자원이 스트레스와 부적으로 관련을 가짐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는 데에는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최근 일부 심리학 분야의 연구들은 대처자원의 효과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심리학 분야의 문화연구에 대한 관심과 관련이 깊다. 지난 20년 간 문화와 관련된 심리학 연구는 문화가 인간행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Lehman, Chiu, & Schaller, 2004; Hofstede, 1980; 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특히 Markus와 Kitayama(1991)는 심리학의 대표적 연구 변인인 동기와 정서, 인지에서 문화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심리학연구에 대한 광범위한 개관을 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일부연구들은 대처자원과 문화의 관련성을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개인적 자원인 자기존중감은 그 수준이나 대상에서 문화적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비서구문화권의 사람들은 서구문화권의 사람들에 비해 자기존중감이 전반적으로 낮을 뿐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자기존중감의 중요성이 낮다는 보고가 있다(Heine & Hamamura, 2007). 특히 최근 긍정적 자기관(positive self regard)에 대한 연구들은 미국이나 캐나다인들에 비해 일본과 중국,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인들의 자기존중감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Heine, 2001, 2007). 따라서 높은 자기존중감이 반드시 스트레스의 대처요인으로서 문화보편적인 효과가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다른 대표적 개인자원인 자기통제감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는 개인적 대처자원이 갖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Morling과 Fiske(1999) 그리고 Morling, Kitayama, 및 Miyamoto(2002, 2003)은 비교문화 연구를 통해서 자기통제감의 효과가 문화에 따라 다름을 밝혔다. 이들은 일본인의 경우 일반적 통제감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 주어진 상황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문화토착적인 이차적 통제감(secondary control)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오히려 스트레스상황에 대처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Morling 등(2002, 2003)은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과 과제에 대해 바로 응전하거나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받아들이거나 또는 공존 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전통과 이차적 통제감이 관련이 있다는 해석을 하며 일반적 자기통제감은 문화에 따라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기존 연구들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서구문화와 동아시아의 문화에서 개인적 자원의 효과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대략적 예측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개인적 자원의 스트레스 대처효과에 대해서 완전히 체계적인 예측은 본 연구에서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앞서 인용한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 비서구문화권 사람들이 서구문화권에 비해 자기존중감이 낮다는 결과가 곧바로 자기존중감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통제감에 대한 연구 외에는 자기존중감의 스트레스 대처효과에 대한 비교 문화연구는 현재 보고된 것이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에 따른 개인적 자원의 상대적 효과

의 차이에 관해서는 예측의 방향을 제안하지 않고 탐색적 연구문제로만 설정하였다.

또 다른 중요한 대처자원인 사회적 지지와 문화의 관련성은 자기존중감에 비해서 문화적 차이가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난다. Kim, Sherman, Ko 및 Taylor(2006)는 Markus와 Kitayama(1991)의 문화와 자기관에 대한 이론을 사회적 지지의 문제에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아시아의 문화전통은 관계 의존적 자기 의무감이 강하며, 따라서 개인적 문제를 타인에게 가지고 가는 것은 타인에게 폐가되며 빚을 지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행위자체가 체면이 손상되거나 자존감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가져올 가능성 있다고 보았다. 이들에 비해서 서구문화에서는 개인과 타인들의 관계가 비교적 독립적이며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공정한 거래와 같은 관계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더라도 이것은 곧 갚을 것이라는 것을 양쪽에서 기대한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사회적 지원을 요청하는데 별로 주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맥락에서 Tylor 등(2004)들은 유럽계 미국인들에 비해서 아시아인이나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에 의존하는 경우가 훨씬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뿐만 아니라 또한 아시아계 사람들이 유럽계 미국인들에 비해 사회적 지지가 덜 효과적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유럽계 미국인들은 그러한 요청이 대인관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반면에 아시아계 사람들은 사회적 지지의 요청이 대인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 것을 발견하였다(Kim, Sherman, Ko, & Taylor, 2006). 이들 연구들은 유럽계 미국인이나 서구인들에 비해서 아시아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덜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회적 지지의 상대적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주지 않는다. 이 문제에 관해서 Sherman(2007)은 사회적 지지를 구체적인 사회적 도움행동을 받는 명시적 사회지지(explicit social support)와 구체적인 도움을 청하지 않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인 암묵적 사회지지(implicit social support)로 구분하고, 암묵적 사회적 지지는 아시아인들이나 아시아계 미국인들에서 더 큰 스트레스 완충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요약하면 대표적인 대처자원인 사회적 자원과 심리적 자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그것들이 스트레스의 부적인 영향을 완충하거나 매개하는데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리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적 자원의 스트레스 대처효과에 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일관적이지 않지만 문화적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사회적 자원은 사회적 지지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암묵적 사회지지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스트레스 대처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연구모형 및 가설

사회변동의 지각과 대처자원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 표현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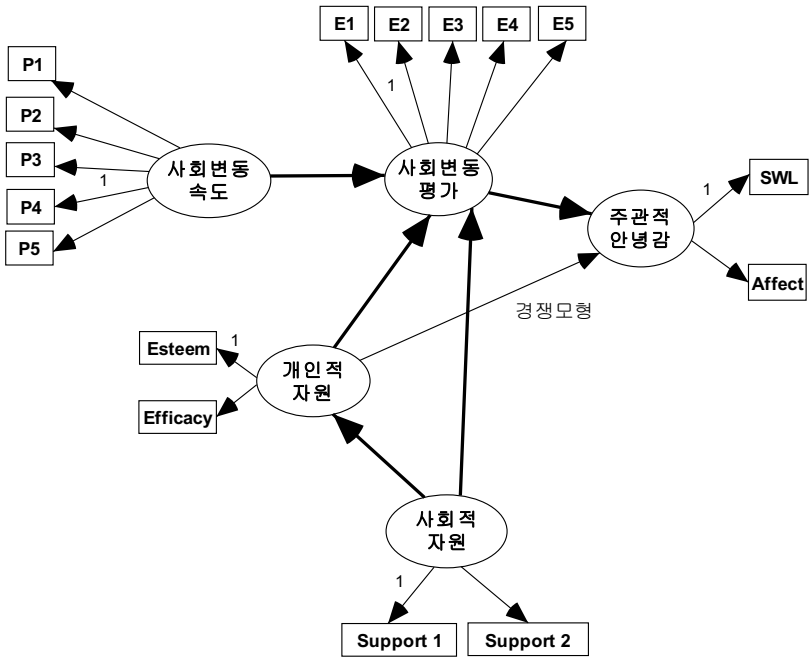

그림 1. 구조방정식 가설모형

주: 1. 개인적 자원에서 주관적 안녕감으로의 경로는 경쟁모형에서 추가된 경로를 의미함.
2. P1 - P5: 5개 사회부분 각각의 사회변동의 속도지각(pace); E1 - E5: 5개 사회부문 각각에서의 사회변동의 평가(evaluation)
3. ESTM = 자기존중감 (Self-Esteem); Efficacy = 일반적 자기효능감; Support 1 & 2 = 사회적 지지; SWL = 삶의 만족도; Affect = 정적-부적 정서

모형은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교류이론(Transactional Theory of Stress)에 바탕을 둔 것으로 사회변동의 속도에 대한 지각과, 대처자원에 대한 지각의 함수로서 사회변동의 인지적 평가가 심리적 안녕감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데 핵심이 있다.

모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독립변인인 사회변동의 속도가 잠재적으로 사회변동 평가와 부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언한다. 사회변동의 속도는 사회변동이 빠르게 혹은 느리게 일어나느냐에 대한 주관적 지각이다. Stompka(2000)는 사회변동의 속도와 평가는 사회변동의 지각에서 두 중요한 특성으로 보았다. 사회변동의 속도는 기존연구들에서 (Durkheim, 1890, 1998; Laurer, 1980; Toffer, 1980)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사회변동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각되면 잠재적으로 사회변동의 평가가 부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제안된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은 사회변동의 평가(appraisal)이다. 사회변동의 평가는 이미 일어났거나 혹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변동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대한 인지적 판단이다. 스트레스의 교류이론에서 스트

레스 원에 대한 평가가 개인이 사용가능한 대처자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런 평가가 심리적 및 신체적 안녕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것처럼, 본 연구는 사회변동을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고 사회변화의 속도와 평가를 직렬선상에 있는 독립변인이 아니라 서로 매개적 관계를 가진 것으로 예언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Kim(2000, 2007)의 연구는 사회변동의 평가가 사회변동의 속도와 정도가 정신적 및 신체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최종 영향은 사회변동의 속도 및 정도의 지각과 자신이 가진 대처자원의 지각을 종합한 사회변동의 평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또한 대처자원 중 개인적 자원이 사회적 자원의 스트레스 대처효과에서 매개적 변인으로 작용함을 예언하였다. 자기(self)에 대한 고전적 상징적 상호작용이론(Cooley, 1902; Mead, 1934)에 따르면 자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타인의 지각을 내면화 한 결과이다. 즉, 개인은 중요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는 평가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를 정의하며, 결국 다양한 상황에서 타인들의 긍정적 평가적 또는 부정적 판단이 내면화 되면 스스로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에 대한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지지와 이해 그리고 긍정적 고려에 의해서 증가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자기 존중감연구(Newcomb & Keefe, 1997; Harter, 1998; Sarason, Saraon, & Pierce, 1994)나 자기효능감 연구(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 Cutrona & Troutman, 1986; Holahan, Moos, & Bonin, 1997; Major et. al., 1990)에서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 즉,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자원의 효과는 자기 존중감과 같은 개인적 자원을 통해서 실현되고 결국 개인적 자원의 이면에는 사회적 지지가 있다는 이론적 입장이다.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이 있고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를 매개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권혁호, 박영신, 김의철, 2002;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2003). 아울러 Kim(in press)의 최근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원의 효과는 주로 개인적 자원을 통해서 매개가 되었지만 사회변동의 평가로의 직접경로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본 모형에서도 개인적 자원에 의한 매개경로와 함께 사회적 자원과 사회변동의 평가 사이에 직접경로를 포함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에 따라 예측모형 외에 경쟁모형도 설정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경쟁모형으로는 대처자원이 정신 및 신체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Hatchett, Friend, Symister, & Wadhwa, 1997; House, Landis, & Umberson, 1988; Pinquart & Sorenson, 2000), 개인적 자원에서 주관적 안녕감으로 직접 경로를 추가한 모형을 제안하였다.

문화변인의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

본 연구에서는 문화에 의한 대처자원의 조절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대조적인 문화적 특성을 보이는 한국과 미국에서 얻어진 자료를 비교하였다. 한국은 집단주의 성향이 높고 미국은 개인주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Hofstede, 1991). 최근 연구(한규석, 신수진, 1999)에서 한국은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미국

과 비교한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집단주의적 성향이 아직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대처자원 중 개인적 대처자원으로 자기존중감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사회적 대처자원으로는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두었다. 사회적 지지에 관해서는 Tylor 등(2007)의 개념적 구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암묵적 사회적 지지[2]에 특히 초점을 두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적 자원의 효과에서의 문화적 차이에 관해서 기존 연구들이 자기통제감 외에는 다룬 경우가 별로 없으므로 효과의 방향에 관해서는 예측하지 않고 단지 문화 간 조절효과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탐색적 연구 문제만을 제안하였다. 한편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반대로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회적 변동에 대처하는 데서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개인주의 문화의 영향이 큰 미국집단에서 더 크게 나올 것으로 예측하였다. 요약하자면 기존의 연구들은 암묵적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집단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권에서 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사회적 지지로부터 개인적 자원, 사회변동의 평가, 그리고 정신적 안녕감에 미치는 경로계수는 한국표본에서 미국표본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예언하였다.

연구방법

측정도구

사회변동의 평가

두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회변동의 구체적 사례가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든지 공통적으로 관심을 둔다고 볼 수 있는 다섯 개의 주요 사회분야(정치, 경제, 복지, 범죄, 및 교육)을 선정하여 해당분야에서 일어나는 사회변동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지 혹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지(예: 정치적 혼란이 늘어나고/줄어들고 있는가, 경제가 나빠지고/혹은 좋아지고 있는가, 사회복지와 혜택이 좋아지고 있는가/나빠지고 있는가, 범죄율이 늘어나고 있는가/줄어들고 있는가, 교육의 질이 나빠지고/좋아지고 있는가)를 5첨 척도(예: 1=아주 좋아지고 있다 5=아주 나빠지고 있다)를 통해 측정하였다.

사회변동의 속도지각

사회변동의 평가지각과 마찬가지로 다섯 개의 주요 사회부문에서 일어난 사회변동이 각각 얼마나 빠르게 혹은 느리게 일어나고 있는지에(예: 범죄율이 증가/감소하고 있다고 할 때, 그 변화의 속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해서 5점 척도(1=매우 느리게 일어나고 있다, 5=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를 통해 측정하였다.

주관적 안녕감

종속변인인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하여 Diener(2000)의 주관적 안녕감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 개념은 삶의 만족도(satisfaction with life)와 정적 및 부적정서(positive and negative affect)로 정의된다. 삶의 만족도가 크고, 정적 정서는 많이 경험하고, 부적 정서는 적게 경

2) 이 후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에서 사회적 지지는 암묵적 사회지지(implicit social support)를 지칭한다.

험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된다. 삶의 만족도는 5문항의 Satisfaction with Life Scale(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으로 측정하였고(예: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6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전적으로 동의한다)를 사용하였다.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Diener, Smith & Fujita, 1995)는 24개의 정서를 응답자들에게 제시하고 각 정서에 대해서 지난 한달 간 얼마나 빈번하게 경험하였는가를 6점 척도(1=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6=아주 많이 경험했다)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각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81, .86, 및 .82였다. 구조방정식 분석를 위해 부적 정서에 대한 문항의 점수는 역부호화하여 정적 정서의 점수와 합계하여 하나의 관찰변수로 사용하였다.

자기존중감

자기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에 대한 가치(self-worth)와 수용감(self-acceptance)에 대한 전반적 느낌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었으면 10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6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전적으로 동의한다)를 사용하였고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7이었다.

일반적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1982)가 개발한 자기효능감척도(Self-Efficacy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예: 유쾌하지 않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해결하고자 한다) 6점 척도를 사용하였고(1=전혀 그렇지 않다 6=아주 그렇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5였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Turner(1992)의 Provision of Social Relation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지지에 대한 주관적 지각의 정도를 묻는 18개의 항목(예: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를 위해서 내 가족들이 내 곁에 있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며 6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매우 동의한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내적합치도는 .83이었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하여 사회적 지지의 척도는 홀수항목과 짝수항목으로 나누어 두 개의 하위척도로 만들어 관찰변수로 사용하는 parceling technique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번역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측정도구들은 주저자를 포함한 두 명의 이중 언어구사자가 비교문화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역번역 방식(back translation)으로 번역하였다. 두 명의 이중 언어자 중 한사람은 영어척도를 한국어로 먼저 번역하고 다른 사람은 번역된 한국어판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여 원척도와 의미가 일치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명 간에 이견이 있는 문항은 직접번역은 피하고 토의를 통해서 의미전달에 주된 초점을 두어 조정하였다.

결 과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의 결과를 보면 두 국가의 연구

참가자들이 사회적 변동의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사회변동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사회변동의 속도의 지각은 두 응답집단이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사회변동의 평가에 대해서는 몇 개 부문에 있어서만 양 국가의 평가지각이 유의하게 달랐다. 경제부문은 미국의 응답자들이 더 부적으로 평가했으며(t[549] = 3.41, p < .01), 복지 (t[549] = 2.13, p < .05)와 범죄(t [549]= 3.23, p < .01)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응답자들이 더 사회변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변동의 속도에 대해서는 전 부문에 걸쳐 두 국가의 차이가 없었다(표 1 참조).

표 2는 사회변동의 지각과 평가를 제외한 다른 척도에서 한국과 미국표본의 점수를 비교한 값을 보여준다. 주목할 만한 차이점을 보면 사회적 지지는 예상과 같이 한국에서 미국보다 높게 나타났다(사회적 지지1: 한국, M=3.47, *SD*=.49; 미국, 3.21, *SD*=.60; 사회적

표 1. 사회변동의 속도와 평가지각에 대한 한국과 미국표본 간 비교

사회 부문	사회변동의 속도 지각			사회변동의 평가지각		
	한국 (N=238)	미국(N=313)		한국 (N=238)	미국(N=313	
	M(SD)	*M(SD)*	*t*	*M(SD)*	*M(SD)*	*t*
정치	3.66(1.16)	3.47(1.29)	1.78	4.35(1.12)	4.46(1.24)	1.02
경제	4.43(1.13)	4.33(1.27)	.88	4.17(1.27)	4.55(1.29)	3.41**
복지	4.28(1.16)	4.29(1.14)	.09	3.24(1.18)	3.47(1.28)	2.13*
교육	3.46(1.15)	3.55(1.19)	.85	3.57(1.18)	3.78(1.22)	1.95
범죄	4.89(1.14)	4.85(1.34)	.35	3.20(1.14)	3.52(1.15)	3.23**

주: * p < .005, ** p < .01

표 2. 주관적 안녕감과 지각된 대처자원에서 두 국가 간 비교

척도	한국 (n=238)	미국 (n=313)	표본 간 차이
	M(SD)	*M(SD)*	*t*
부적정서	3.63(.71)	3.86(.75)	-2.54**
정적정서	3.97(.31)	3.50(.38)	6.05***
삶의만족	3.43(.39)	3.82(.45)	-5.33***
사회적 지지1	3.47(.49)	3.21(.60)	5.42***
사회적 지지2	3.88(.36)	3.76(.38)	4.76***
자기효능감	4.00(.79)	3.93(.73)	.94(ns)
자기존중감	4.17(.67)	3.79(.73)	6.18***

주: 1. 사회적 지지척도는 문항을 두 개의 하부척도로 나눔. 사회적 지지1 = 홀수 문항, 사회적 지지2= 짝수 문항

2. ** p<.01, *** p<.001

지지2: 한국, M=3.88, SD=.36; 미국, M=3.76, SD=.38).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자기존중감에서 한국표본의 평균(M=4.17, SD=.67)이 미국표본(M=3.79, SD=.73)보다 더 높았다. 자기효능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구조방정식 분석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분석은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하는 방식에 따라 먼저 측정모형분석(measurement model test)을 한 다음 잠재변수사이의 관계를 검증하는 잠재모형분석(latent model test)하는 2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두 표본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고 두 구조방정식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다표본 구조방정식 분석(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였다. Byrne(1998)의 추천하는 방식에 따르면 이 분석은 다음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각 표본마다 별도의 기저모형(baseline model)을 추정한 후 기저모형의 적합도가 구조방정식 비교를 위한 공통의 기저모형으로 사용해도 될 만큼 만족스러운지를 검증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구조방정식 계수들이 두 집단에서 자유롭게 다르다고 가정하는 무제약모형(unconstrained model)을 추정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의 초점이 되는 구조방정식 계수가 두 표본에서 같다고 가정하는 제약모형(constrained model)을 추정한다. 만일 무제약모형과 제약모형에서 카이자승 값에서 차이가 있으면 이는 초점이 되는 계수에서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추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계수는 대처자원인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지지에서 다른 잠재변수들로 연결된 경로계수로서 이들이 두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 통계절차의 주요목적이다.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분석은 측정을 위해 직접 사용된 변인들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구현되는 잠재변인을 잘 대표하는 가에 대한 검증을 제공한다. 다 표집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측정모형분석은 표본 별로 따로 수행한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표본 각각의 모형적합도를 분석하여 각 측정모형이 만족스러울 때 두 표본의 경로구조의 비교가 가능하다.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를 보면 처음에 제안한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가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표본의 경우, χ^2(88, N=238)=289.20, p< .001, χ^2 /df=3.26, NFI=.97, TLI=.97, CFI=.98, RMSEA=.06. 또한 미국표본의 경우도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가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χ(88, N=313)=305.32, p < .001, χ^2 /df =3.47, NFI=.98, TLI=.98, CFI=.98, RMSEA=.07. 따라서 측정모형 분석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관찰 변수들이 잠재변수들을 잘 구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찰변수들을 추가하거나 빼지 않고 처음에 예측한 5 요인 모형을 그대로 구조모형 검증에 사용하였다.

표 3은 측정모형의 검증 결과 예측된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행렬을 보여준다. 먼저 미국표본의 경우 예상대로 사회변동의 속도는 사회변동의 평가와 유의하게 관련을 보였으며(r=-.45, p<.01), 이는 사회변화의 속도를 빠르다고 지각할수록 사회변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변동의 평가는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r=.52, p<.01). 한국표본의 경우도 유사한 결과를 보

표 3. 관찰모형 검증 결과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행렬

	(1)	(2)	(3)	(4)	(5)
(1) 사회변동의 속도	___	-.38	-.03[a]	-.11	-.17
(2) 사회변동의 평가	-.45	___	.13	.32	.51
(3) 개인적 자원	-.21	.47	___	.62	.58
(4) 사회적 자원	-.02[a]	.18	.74	___	.18[b]
(5) 정신적 안녕감	-.38	.52	.71	.47	___

주: 1. a = 유의하지 않음; b = .05 수준에서 유의; 나머지 상관계수들은 .01 수준에서 모두 유의
2. 대각선 아래 부분은 미국 샘플, 대각선 윗부분은 한국샘플의 상관행렬

였다(r=-.38, p<.01, 사회변동의 속도지각과 평가 간의 상관; r=-.17, p<.01, 사회변동의 평가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상관).

구조모형 검증: 잠재변수의 경로 분석

구조모형의 검증은 측정모형을 통해서 구현된 잠재변수들 사이의 경로에 대한 전체적인 모형적합도를 검증한다. 본 연구의 모형은 Folkman 과 Lazarus(1984)의 스트레스 모형에 바탕을 두었음으로 사회변동의 평가에 의한 매개적 효과 및 개인적 자원의 매개적 효과에 대한 검증을 포함하는 잠재변수들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를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에서 사용된 5개의 잠재변수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먼저, 한국표본에서 예측된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를 본 결과 만족스럽게 나타났다(χ^2(95, N=238)=285.75, p<.001, χ^2 /df=3.05, NFI=.97, TLI=.97, CFI=.97, RMSEA=.06). 예측모형의 모형적합도가 만족스러웠지만 구조방정식 분석과정의 일반적인 추천방식에 따라 경쟁모형도 검증하였다. 개인적 자원이 직접적으로 정신적 안녕감 변인들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갖는다는 연구결과들(Hatchett, Friend, Symister, & Wadhwa, 1997; House, Landis, & Umberson, 1988; Pinquart & Sorenson, 2000)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측모형에 비교해서 경쟁모형은 개인적 자원에서 주관적 안녕감 사이의 직접경로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예측모형에 비해 경쟁모형의 카이자승값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Delta\chi^2$=14.33, p<.001)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여러 지수들이 가설모형에 비해 조금 나아졌으나 변화가 크지 않았고(χ^2[94, N=238] =275.42, p<.001, χ^2 /df=14.33, NFI=.97, TLI=.98, CFI=.98, RMSEA=.07) 경쟁모형에서 경로를 추가함으로서 모형의 간명성이 떨어졌다. 따라서 경쟁모형은 통계적으로는 카이자승값이 나아졌으나 간명성이 떨어지고 이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적으므로 최종모형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미국표본의 경우도 예측모형이나 경쟁모형이 모두 만족스러운 모형적합도를 보였다(표 4 참조). 따라서 한국표본의 경우와 마찬가지 이유로 미국표본에서도 경쟁모형은 채택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구조모형은 잠재변수들 간의 중요한 관계양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우선, 예측대로 사회변동의 속도지각은 사회변동의 평가지각의 매개과정을 통해서 주관

표 4.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잠재변수 간 경로분석)

	한국		미국	
경로계수 및 모형 적합도	예측모형	경쟁모형	예측모형	경쟁모형
사회변동의 속도 → 사회변동의 평가	-.33	-.34	-.31	-.30
사회변동의 평가 → 주관적 안녕감	.54	.42	.59	.16
개인적 자원 → 사회변동의 평가	.39	.41	.55	.44
사회적 자원 → 개인적 자원	61	.62	.73	.73
사회적 자원 → 사회변동의 평가	.41	.44	.05a	.03a
개인적 자원 → 주관적 안녕감	___	.53	___	.65
χ^2	289.75	275.42	285.95	257.72
df	95	94	95	94
χ^2 /*df*	3.05	2.93	3.01	2.74
NFI	.97	.97	.97	.97
TLI	.97	.98	.97	.97
CFI	.97	.98	.98	.98
RMSEA	.06	.07	.06	.07
$\Delta\chi^2$	14.33**		28.23***	

주: 1. a = n.s. 나머지 경로계수는 모두 p < .01 수준에서 유의.

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었다(effect size=-.18, Sobel's test z=-1.97, p< .05). 또한 개인적 자원에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효과도 사회변동의 평가지각을 통해서 매개되었다(effect size=.21, Sobel's test z=-2.25, p<.05). 사회적 지지는 개인적 자원의 매개를 통해서 사회변동의 평가와 관련을 가졌다(effect size=.23, Sobel's test z=2.14, p<.05). 따라서 본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변동의 평가지각의 매개효과에 대한 예측은 지지되었다. 미국표본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표 4 참조).

문화변인의 조절 효과 분석

한국과 미국 두 집단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표본 구조방정식 분석(multi 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수행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을 제공하지만 조절변인에 의한 효과는 같은 구조모형에서 조절변인의 정도에 따라 경로지수의 크기의 비교를 함으로서 검증할 수 있다. Byrne (2004)가 제안한 절차대로 모형1(unconstrained model)에서는 모든 측정계수를 자유롭게 추정하여 기저모형으로 사용하였다. 측정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표본의 요인계수를 같도록 추정한 모형2와 아무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1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모형의 카이자승값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다, $\Delta\chi^2$ [11]=14.08, *n.s.*

따라서 두 모형의 측정동일성은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모든 경로계수가 같도록 제약한 모형3을 모형1과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만일 두 모형이 유의하게 다르면 그 차이는 제약한 경로계수 전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두 모형 간에 카이자승값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Delta\chi^2$ [32]=105.48, p <.001). 이 결과는 두 모형 간에 경로계수값이 전체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4에서 모형8까지는 한국과 미국 두 표본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경로계수가 유의하게 다른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초점이 되는 경로계수만을 같도록 추정하여 모형1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표본에서 두 모형에서 모두 사회변동의 속도와 평가 사이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ρ=-.33 → -.31, *n.s.*). 사회변동의 평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표시하는 경로도 유의하지 않았다(ρ=.54 → .59, *n.s.*). 이는 사회변동의 평가가 한국표본이나 미국표본에서 모두 주관적 안녕감과 비슷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에서의 경로계수의 변화를 보면, 개인적 자원에서 사회변동의 평가로의 경로계수(ρ =.39에서 .55, p<.001)와 사회적 지지에서 개인적 자원(ρ=.61에서 .73으로 변화, p<.01)으

표 5. 다 표본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모형 별 적합도

모형	χ^2	*df*	$\Delta\chi^2/\Delta df$	NFI	TLI	CFI	RMSEA
모형 1 (모든 측정계수를 자유롭게 추정)	547.20	190		.94	.96	.97	.07
모형 2 (요인계수를 같도록 제약)	561.28	201	1.28n.s.	.95	.96	.95	.06
모형 3 (모든 경로계수를 같도록 제약)	652.68	222	3.29***	.95	.96	.98	.06
모형 4 (사회변동의 속도 → 사회변동의 평가)의 경로 제약	581.16	218	1.32n.s.	.97	.97	.98	.06
모형 5 (사회변동의 평가 → 주관적 안녕감)의 경로 제약	588.65	219	1.48n.s.	.97	.95	.98	.05
모형 6 (개인적 자원 → 사회변동의 평가)의 경로 제약	634.49	220	3.01***	.97	.96	.98	.06
모형 7 (사회적 자원 → 개인적 자원)의 경로 제약	625.21	220	2.69**	.96	.95	.97	.05
모형 8 (사회적 자원 → 사회변동의 평가)의 경로 제약	633.24	220	2.97***	.95	.96	.98	.06

주: 1. NFI = Bentler Bonnet Fit Index, TLI = Tucker Lewis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s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2. * p < .05, ** p < .01, *** p < .001

3. 모형 4에서 모형8까지 괄호안의 경로는 각 모형에서 제약된 경로를 의미.

로의 경로계수는 유의하게 변화했다. 무엇보다 사회적 지지에서 사회변동의 평가에 대한 경로계수가 가장 큰 폭으로 변화하였다(β =.41에서 .05 로 변화, p<.001). 특히 이 경로계수는 미국표본에서는 거의 0에 가까운 수치였으나 한국표본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가졌다. 이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사회변동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표본에서 크게 나타나지만 미국표본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중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가설은 지지되었다. 각 모형의 비교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첫째, 사회변동의 속도와 평가에 대한 지각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가를 검증하였다. 둘째, 이러한 사회변동이라는 스트레스 원과 주관적 안녕감 사이의 관계에서 대처자원이 갖는 효과가 한국과 미국 두 국가에서 다른가를 알아보았다.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을 발견하였다.

사회변동의 지각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사회변동의 지각이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최근의 사회변동에 대한 일련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Noack et al.(2001) 그리고 Pinquart 및 Sorenson (2004)은 통일독일에서 수행한 연구를 통해 사회변동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지각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고, 특히 최근에 Kim(in press)은 한국과 홍콩의 사회변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변동에 대한 인지적 평가지각이 사회변동의 지각과 정신건강 사이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함을 밝혔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의 연구결과와 일관된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인지적 지각의 중요성은 미디어나 언론의 발달로 사회각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명확한 지각을 가지며, 이러한 지각은 실제로 사회변동이 직접적 영향을 주기 이전이라도 (예를 들어 급속한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은 경제적 압박을 가져와 우울함을 증대시킬 수 있다) 주관적 평가를 통하여 심리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변동의 속도가 빠르게 지각될수록 사회변동의 평가는 부적으로 되어 궁극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개관계를 발견하였다. 이 관점은 사회변동의 속성이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지각되는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인데(Lauer, 1991; Lauer & Lauer, 1974, Stompka, 2000) 본 연구의 결과는 이점을 지지하였다.

사회변동의 평가지각이 갖는 매개적 효과는 사회변동의 속도와 주관적 안녕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대처자원과 주관적 안녕감 사이에서도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사회변동이 갖는 심리적 영향에 대해 통합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변동이 부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목할 만한 일부 학자들은 사회변동이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음을 주장했다. 초기 사회학이 사회변화에 대하여 가졌던 낙관적 태도와 많은 면에서 일치하는 이 관점은 사회변동이 기회와, 흥분, 및 희망을 가져오므로

긍정적으로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Gersten, Langner, Eisenberg, & Orzeck, 1974; Thomas & Veno, 1992; Wheaton, 1994). 이 관점은 기존의 관점들이 사회변동의 부적인 영향에 초점을 둔 데 비해 반대의 입장에 있어서 사회변동의 심리적 이해에 관한 이론적 혼란을 가져왔었다. 이렇게 상반되지만 여러 연구들에서 경험적으로 지지된 두 견해에 대하여 본 연구의 스트레스의 교류이론(Lazarus & Lazarus, 1985, 1990)을 통해 두 양립된 입장을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접근방식(Kim, in press)이 이론적으로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즉, 사회변동의 속도 자체는 잠재적으로 위험요소가 되지만, 개인이 가진 대처자원의 효용과 가치의 유무나 정도에 따라 사회변동은 기회가 되거나 독이 될 수 있다는 통합적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변동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다는 통합적 설명이 사회변동의 심리적 영향에 대해 가장 적절한 모형임을 경험적으로 지지하였다.

또한 주관적 지각을 통하여 사회변동을 측정한 연구방식을 통해 주로 거시적 변인에 주목하였던 기존의 연구와 일관되는 유의한 결과를 발견함으로써 개인의 주관적 지각이 가지는 대안적 방법론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Pinquart & Silbereisen, 2004; Trommsdorff, 2000). 사회변동이라는 연구주제의 중요성에 비하면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거시적 변인의 연구에 제한적인 관심을 두어서 실제적 응용이나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단점이 있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새로운 연구방법의 대안을 확인함으로써 사회변동 연구에 방법론적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가치를 가진다.

문화변인의 조절효과

본 연구의 핵심문제인 문화에 의한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는 전반적으로 예측과 일치했다. 한국과 미국의 표본에서 각각 대처자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비록 사회적 변동이 가져오는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친다는 점은 같았지만, 대처자원의 효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와 개인적 자원은 서로 다른 조절효과를 갖는 것이 발견되었다. 먼저, 개인적 자원은 미국표본에서 약간 더 강한 효과가 있지만 한국과 미국 두 표본에서 모두 유사한 대처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는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든 자기존중감과 같은 개인적 자원을 많이 가질수록 대처에 도움이 된다는 기존의 발견을 다시 확인시키는 결과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Morling, Kitayama, Miyamoto, 2002, 2003)이 개인적 자원과 스트레스의 대처 사이에서 문화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대략적 예측을 하였지만 경험적으로 연구된 바가 적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 문제에 관해 경험적 검증을 제공하였다.

주목할 만한 발견은 사회적 지지가 두 국가 표본에서 뚜렷하게 다른 대처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으로 사회변동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표본보다 한국표본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b=41; 미국, b=.05). 이 결과는 국가 간 비교를 했다는 점에서 분석의 단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 내의 다른 민족집단 간 비교를 통해서 암묵적 사회적 지지가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아시아계 사람들에게 더 효과가 있음을 발견한 Taylor 등(2004, 2007)의 최근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흥미롭게도 사회적 자원이 개인적 자

원(한국, b=.61; 미국, b=.71)에 미치는 경로계수는 미국이 높았다. 이는 아마도 미국인들의 경우 사회적 자원에 대한 암묵적 지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이 문화권에서 중요한 개인적 자원을 통해서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는다. 이 문제는 새로운 연구과제로서 이 후의 연구를 통해서 검증되기를 기대한다.

국가에 따라 두 대처자원의 효과가 달리 나온 것은 어떤 실제적 의미를 갖는가? 이 결과는 현재 서구권 문화에서 흔히 사용하는 자기존중감이나 자기효용감과 같은 개인적 자원이 다른 문화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할 것이라고 비판 없이 적용하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주의가 상대적으로 더 발달한 북미나 유럽문화권의 경우 개인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선적으로 자아존중감이나 통제감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많이 한다. 이러한 문화권에서는 상담가들이나 임상심리학자들이 내담자를 다룰 때 우선 자아존중감을 상승시켜 주기 위해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는 것은 이미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다(Baumeister, 1993; Taylor & Brown, 1988). 미국의 서점에서 항상 베스트셀러에 포함되는 흔히 자기계발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책들도 대부분 자기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거나 계발하는데 중점을 둔 책들로서 사회 전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의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가를 보여주는 예이다. 개인적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사회의 특성에 따라 분별있게 받아들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그렇지 못한 경향성이 있었다. 특히 자기존중감과 같은 변인이 문화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는 문화심리학자들이 이미 여러 번 제기되었지만 (Heine & Hamaura, 2007, Morling, Kitayama, Miyamoto, 2002, 2003) 실제로 이런 변인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변인으로 작용할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적 자원 그리고 사회적 자원이 갖는 스트레스 대처효과는 문화에 따라 다른 특성과 무게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적 관점에서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지지의 상대적 효과가 갖는 차이는 구체적인 정책입안이나 재정의 효율적 이용과 같은 문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든 구체적 정책의 수립과 수행을 위해 종종 제한된 재정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때 사회적 자원을 확충시키는 정책에 무게를 둘 것인가 혹은 개인적 자원의 발달을 돕기 위한 정책에 무게를 둘 것인가 하는 딜레마는 흔히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급격한 경제적 사회변동을 경험했던 1997년의 경제위기를 겪은 후 한국에서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들이나 직장인들을 돕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아빠! 힘 내세요'와 같은 메시지를 공익광고를 통해서 전달함으로서 어깨에 힘이 빠진 실직자들에게 기운을 북돋아 줄 것인가 혹은 이들이 스스로의 대처능력을 키우도록 하는(즉 개인적 자원의 개발을 도와주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반적 수준에서는 양자가 모두 바람직한 책략이지만, 예산과 사회적 자원이 항상 제한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정책실무자들에게는 중요한 현실적 문제임이 틀림없다. 본 연구의 결과만을 토대로 하면, 한국과 같은 문화권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인

자원 확충을 위한 프로그램보다 더 효과적일 지 모른다.

한계와 제안

본 연구는 최근의 연구경향에 따라 사회변동을 측정하는 데 개인의 주관적 지각이라는 변인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여러 가지 유용성을 갖지만 사회변동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필요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사회변동의 측정방식은 실제로 측정에 어려움이 많고 사회변동이 갖는 특성인 종단적 성격에 따른 제약을 가지는 것이지 여러 가지 방법론의 통합적 접근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회변동(예: 물가인상)과 같은 변인들을 비교하는 것이 사회변동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데 바람직하지만 이는 본 연구에서 주목한 한국과 미국 두 국가의 표본이 유사한 사회변동을 경험했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각 사회부문에서 일어나는 변동에 대한 전체적 조망을 측정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의 주 관심이 사회변동의 지각이라는 스트레스원의 영향과정에서 대처자원이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조절 효과를 갖느냐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변동의 구체적 측정보다는 전체적 조망을 측정하였는데, 이는 연구의 목적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실제적 측정과 주관적 지각의 통합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제한점은 본 연구가 문화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 간 비교방식을 사용함으로서 국가와 문화를 등치화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각각 집단주의 적 문화와 개인주의적 문화를 어느 정도 대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와 문화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한국과 같이 비교적 동질적 민족과 문화를 가진 국가는 국가단위가 문화단위로 표현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지만 미국과 같은 다민족 국가는 국가라는 집단단위 속에 여러 민족문화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어서 하나의 문화단위로 표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유럽문명, 개신교적 종교전통, 백인, 및 중산층으로 대표되는 소위 '미국 문화'라는 것이 미국의 문화로서 정의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있다. 측정의 차원에서 Matsumoto, Grissom 및 Dinnel(2002)는 어떤 변인의 점수에 대해 문화집단 간 단순 비교는 문화집단 간의 응답성향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예: 중앙치 편포가 동북아시아에서 높게 나온다). 또한 사용되는 언어의 함축적 의미에서의 차이(예: 우울증[depression]은 기독교 전통의 서구문화에서 죄의식[guilt]과 관련이 깊으나 동북아시아 문화에서는 수치[shame]과 더 관련이 깊다) 등과 같은 문제도 문화집단 간 비교의 문제가 된다. 우리는 어떤 변인의 점수를 단순히 비교하는 연구에서는 이런 오류가 생기기 쉽다는 점에서 이들 학자들과 동의한다. 물론, 본 연구와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변인 간 관계에 대하여 비교하는 것은 비교는 변인과 변인 사이의 관계의 정도에 대한 비교이므로 점수의 단순비교에서 발생하는 편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하지만 측정의 차원에서 번역의 적절성은 항상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결 론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첫째로 사회변동의 주관적 지각은 사회적 변동의 평가에 영향을 줌으로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과 별개로 정신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열심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중년의 남성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늘 스스로가 뒤처지고 낙오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험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미디어의 발전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분명이 지각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사회변동이 개인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이나 주관적으로 지각된 현실에 적응하는 데서 오는 정신적 부담감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대처자원의 문화에 따른 조절효과를 발견하였다. 대처자원의 효과에 대한 문화적 비교는 기존의 연구에서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큰 장애는 개인적 자원과 같은 변인들이 문화적으로 민감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처자원이 효과적으로 개인들이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실제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 전술한 대로 제한된 재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인적 자원에 비해 사회적 자원이 스트레스 대응에서 한국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발견은 대처자원의 효과적 분배를 위한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유사하게 미국의 경우 많은 민족들이 공존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각 민족 별로 문화적으로 특수한 스트레스 대처기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기제에 대한 연구들은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이 없이 일반적인 설명을 할 뿐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하여 해석한다면 여러 민족 문화집단들이 갖는 특수성에 대한 고찰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자원의 문제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을 주지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며 변화하지 않는 것은 변화한다는 사실 그 자체 뿐'이라고 독일의 철학자 헤겔(Hegel)은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관점은 절대로 새로운 것이 아니며 동양적 전통, 특히 불교에서는 오래 전부터 삼라만상은 변하는 것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사회변동에 대해 일반인들도 늘 지각하고 있으면 사회변동의 주관적 지각은 사람들의 정신적 건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확인하였다. 사회변동은 거대한 연구주제이다. 사회변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방식의 접근책략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주제의 거대함으로 인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특히 심리학에 잘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점점 더 급속히 변하는 오늘날의 경제, 정치, 문화적 상황에서 사회구성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변동이라는 주제를 다각적으로 연구해야하는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주제를 탐구하는데 접근 방식으로서 주관적 지각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화에 따른 대처자원의 효과에 대한 고찰을 제공하였다.

참고문헌

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원 및 질병관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2), 143-181.

박영신, 권혁호, 김의철 (2003).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종단적 연구: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인하교육연구, 9, 79-107.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1999).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데 대한 구조적 관계분석: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57-76.

채정민, 한성열, 이종한, 금명자 (2007). 독일의 정신건강 연구를 통해 본 한국의 통일심리학 방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1), 91-114.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Adwin, C. M., & Revenson, T. A. (1986). Vulnerability to economic str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161 175.

Albrow, M. (1996). *The global age*. Cambridge: Polity Press.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 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 423.

Baumeister, R. F. (1993). Understanding the inner nature of low self esteem: Uncertain, fragile, protective, and conflicted. In R. F. Baumeister (Ed.), *Self esteem: The puzzle of low self regard*(pp.201 218). New York: Plenum Press.

Balakrishnan, S. (1993). The new Russia: The challenge of psychological change. *Humanistic Psychologist, 21*, 180 186.

Byrne, B. M. (199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Cooley, C. H.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Scribner.

Crockettt, L. J. & Silbereisen, R. K. (2000). Social change and adolescent development: Issues and challenges. In L J. Crockett & R. K. Silbereisen (Eds.), *Negotiating adolescence in times of social change* (pp. 1 13).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Curbow, B., & Somerfield, M. (1991). Use of the Rosenberg Self Esteem Scale with adult cancer patients. *Journal of Psychosocial Oncology, 9,* 113 - 131.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 efficacy: A mediation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 1518.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 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s,* 55, 34 43.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 75.

Diener, E., Smith, H., & Fujita, F. (1995). The personality structure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30 141.

Doerfel Baasen, D., & Rauh, H. (2001). Parents and teachers of young children under conditions of socio-political chang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4 (11)*, 1818 1842.

Durkheim, E. (1997).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New York: Free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893)

Elder, G. H., & Caspi, A. (1990). Studying lives in a changing society: Sociological and personological explorations. In R. A. Zucker, A. I. Rabin, J. Aronoff, & S. J. Frank (Eds.), *Personality structure in the life course*(pp.276 322). New York: Springer.

Elder, G. H., Jr. (1999).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Social changes in life experience.* Boulder, CO: Westview.

Fernandez, M. E., Mutran, E. J., & Reitzes, D. C. (1998). Moderating the effects of stress on depressive symptoms. *Research on Aging, 20,* 163 - 182.

Gersten, J. C., Langner, T. S., Eisenberg, J. G., & Orzeck, L. (1974). Child behavior and life events: Undesirable change or changer per se? In B. S. Dohrenwend & B. P. Dohrenwend (Eds.), *Stressful life events: Their nature and effects* (pp. 159 170). New York: Wiley.

Harter, S. (1993). Causes and consequences of low self 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R. Baumeister (Ed.), *Self esteem: The puzzle of low self regard* (pp. 87 111). New York: Plenum Press.

Harter, S. (1998). The development of self representations.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553 617). New York: John Wiley.

Hatchett, L., Friend, R., Symister, P., & Wadhwa, N. (1997). Interpersonal expectations,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to chronic ill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3)*, 560 573.

Heine, S. (2001). Self as cultural product: An examination of East Asian and North American severs. *Journal of Personality, 69(6)*, 881 906.

Heine, S. J., & Hamamura, T. (2007). In search of East Asian self enhanc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1*, 1 24.

Hermans, H. J., & Kempen, J. G. (1998). The perilous problems of cultural dichotomies in a globalizing society. *American Psychologist, 53*, 1111 1120.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 related values.* Beverly Hill, CA, Sage.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gdon: McGraw.

Holahan, C. J., Moos, R. H., & Bonin, L. A. (1997). Social support, cop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 resources model. In W. R. Avison, & I. H. Gotlib (Eds.), *Stress and mental health: Contemporary issues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pp. 213-238).

New York: Plenum.

House, J. S., Landis, K. R., Umberson, D. (1988). Social relations and health. *Science, 241,* 540 545.

Ihle, W., Esser, G., Schmidt, M. H., Blanz, B., Reiz, O., & Meyer Probst, B. (2001). Prevalence, course, and risk factors for mental disorders in young adults and their parents in East and West German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4(11),* 1918 1936.

Lewin, K. (1935). *A dynamic theory of personality*. New York: McGraw Hill.

Kameoka, V. A., & Marsella, A. J. (1999). Perception and consequences of social change among elderly Japanese American workers in Hawaii plantation community: a case example of individual withdrawal. *South Pacific Journal of Psychology, 10*, 1 17.

Kim, J. S. (2001). Social chang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Korean employed and unemployed worker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B: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61(7-B), 3902.*

Kim, J. S. (in press). The perceptions of social change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A study focusing on social change in Korea between 1997 2000.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Kim, H., Sherman, D. K., Ko, D., & Taylor, S. E. (2006). Pursuit of comfort and pursuit of harmony: Culture,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see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12)*, 1595 1607.

Lauer, R. H. (1991). *Perspectives on social change.* Boston: Allyn and Bacon.

Lauer, R. H., & Lauer, J. C. (1976). The experience of change: Tempo and stress. In G. K. Zollschan, & H. Walter (Eds.), *Social change* (pp.520-545). New York: Schenkman Publishing Company.

Lazarus, R. S. (1991). Progress on a cognitive motivational relational theory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s, 46,* 819 834.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Lehman, D. R., Chiu, C-Y., & Schaller, M. (2004) Psychology and cultur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 689-714.

Lightsey, O. R. (1994b). "Thinking positive" as a stress buffer: The role of positive automatic cognitions in depression and happi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325 334.

Major, B., Cozzarelli, C., Sciacchitana, A. M., Cooper, M. L., Testa, M., & Mueller, P. M. (1990).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 efficacy, and adjustment to abor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452 463.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 253.

Marsella, A. J. (1998). Toward a "global community psychology": Meeting the needs of a changing world. *American Psychologist, 53(12)*, 1282 1291.

Matsumoto, D., Grissom R. J., &Dinnel, D. L. (2001). Do between-culture differences really

mean that people are different? A look at some measures of cultural effect siz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4), 478-490.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oose, R. H. & Schaefer, J. A. (1993). Coping resources and processes: Current concepts and measures. In L. Goldberger & Berznitz, S. (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pp. 234 257). New York: The Free Press.

Morling, B., & Fiske, S. T. (1999). Defining and measuring harmony control.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3,* 379 414.

Morling, B., Kitayama, S., & Miyamoto, Y. (2002). Cultural practices emphasize influ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adjustment in Japa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311 323.

Morling, B., Kitayama, S., & Miyamoto, Y. (2003). American and Japanese women use different coping strategies during normal pregnanc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1533 1546.

Morris, E. W. (1998). Household responses to major economic change in Poland: A theoretical framework.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9*, 199 220.

Newcomb, M.D. & Keefe, K. (1997). Social Support, Self esteem, Social conformity and Gregariousness: Developmental Patterns across Twelve Years. In: G.R. Pierce, B. Lakey, I.G. Sarason, & B.R. Sarason (Eds.), *Sourcebook of Social Support and Personality*. New York: Plenum.

Noack, P., Kracke, B., Wild, E., & Hofer, M. (2001). Subjective experiences of social change in East and West Germany: Analyses of the perceptions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4(11), 1798 1817.

Pinquart, M. & Sorenson, S. (2000). Influences of socioeconomic status, social network, and competence on subjective well being in later life: A meta analysis. *Psychology and Aging, 15,* 187 224.

Pinquart, M., & Silbereisen, R. K. (2004). Human development in times of social change: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research need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4)*, 289 298.

Pinquart, M., Silbereisen, R. K., & Juang, L. P. (2004). Changes in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East German Adolescents facing German unification: The role of commitment to the old system and of self-efficacy beliefs. *Youth and Society, 36(1),* 77-101.

Pyszczynski, T., & Greenberg, J. (1987). A biased hypothesis testing model of motivated attributional distort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0, pp. 297 – 340). San Diego, CA: Academic Press.

Rosenberg, M. (1985). Self 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L. Leahy (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pp. 205 246). Orlando, FL: Academic Press.

Sarason, I. G., Levine, H. M., Basham, R. B., & Sarason, B. R. (1983). Assessing soci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27 139.

Sarason, I. G., Sarason, B. R., & Pierce, G. R. (1994). Social support: Global and relationship based levels of analysi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11*, 295 312.

Schroeder, H. (1997). Psychosocial stress and the process of coping among East German. In I. Al Issa & M. Tousignant, (Ed). (1997). *Ethnicity, immigration, and psychopathology* (pp. 121 133). New York: Springer.

Sherer, M., Maddux, J.E., Mercadante, B., Prentice Dunn, S., Jacobs, B., & Rogers, R.W. (1982). The self 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 671.

Simonds, J. F., McMahon, T., & Armstrong, D. (1991). Assessing the impact of life changes: Development of the life experiences surve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5)*, 932 946.

Sloutsky, V. M., & Searle White, J. (1993). Psychological responses of Russians to rapid social change in the former U.S.S.R. *Political Psychology, 14,* 511 526.

Sztompka, P. (2000). Cultural trauma: The other face of social chang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3(4),* 449-466.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 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 210.

Taylor, S. E., Sherman, D. K., Kim, H., Jarcho, J. Takagi, K., & Dunagan, M. S. (2004). Culture and social support: Who seeks it and w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3),* 354 362.

Taylor, S. E., Welch, W. T., Kim, H., & Sherman, D. K. (2007). Cultural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and biological stress responses. *Psychological Science, 18(9)*, 831 837.

Thomas, D. & Veno, A. (1992). *Psychology and social change*. Palmerston North, New Zealand: The Dumore Press.

Toffler, E. (1980). *Third wave.* New York: Bantam Books.

Trommsdorff, G. (2000). Subjective experience of social change in individual development. In J. Bynner & R. K. Silbereisen (Eds.), *Adversity and challenge in life in the new Germany and in England* (pp. 87 122). Basingstoke, England: Macmillan.

Turner, R. J. (1992). Measuring social support: Issues of concept and method. In O.Veiel, & U. Baumann (Eds.),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pp. 217 233). New York: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Wheaton, B. (1994). Sampling the stress universe. In W. R. Avison & I. H. Gotlib (Eds.). *Stress and mental health: Contemporary issues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pp. 77 114). New York: Plenum Press.

1 차 원고 접수일 : 2008. 01. 02
최종 원고 접수일 : 2008. 02. 09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2008, Vol. 14, No. 1, 19~45.

Perceptions of Social Changes and Subjective Well-Being: A Cross-National Analysis of the Coping Resource Effectiveness

Jungsik Kim —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Wansuk Gim — Ajou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s of social change and subjective well-being, and the effectiveness of coping resources in such a relationship by compar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 of the samples obtained in two countrie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articipants in two countries reported their perceived pace of social change, evaluation of social change,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 resources(self-esteem and self-efficacy), and social resources. Based on the survey data, a structural equation models was developed and compared across two samples to examine the moderation effects of coping resources by culture and nations.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the perceived pace of social change affected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evaluations of social change a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effectiveness of coping resources: social resources had stronger effects for the Korean sample whereas personal resources had stronger effects for the U.S. sample. Discussions on the psychological impact of a new type of social stress, social change, is included.

Key words : Social change, subjective well-being, culture, structural equation model